

## 정부-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약

### 양평군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참가

경기도 양평군(군수 한택수)은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혁신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선도자치단체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협약(MOU) 체결식에 참가했다.

지난 9월 21일 열린 협약식에는 오영교 행정부 장관, 이용섭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 행정부 제2차관, 박광태 광주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김동기 인천부시장 등 5개 광역자치단체(장)가 참가했다. 또 한택수 양평군수를 비롯한 김용서 수원시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 21개 기초자치단체(장)를 비롯해 정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 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통합행정혁신시스템(harmoni) 시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 협약서 체결을 통해 양평군은 지방행정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군의 실정에 맞는 3~4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실천해 주민을 우선하는 지방행정혁신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타 자치단체로 파급해야 할 책무를 맡게 된다. 정부도 군이 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혁신컨설팅 등 행정지원에 힘써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으로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양평군이 이번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을 계기로 지방행정혁신 부문에서도 타 자치단체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원, "친환경농업조례" 제정

### 10월초 군의회서 확정, 단채장 육성 책무 명문화 '주목'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군'임을 자처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9월 28일까지 관련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10월초 군의회로 넘길 예정이다. 청원군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지원책을 확고히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12인 내외로 구성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협의하고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육성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주요하게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 문경시, "친환경 자족마을" 만든다

### 100억 투자 "로하스 빌" 조성계획

웰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의 로하스(LOHAS) 마을이 전국 최초로 문경시에 조성될 전망이다. 문경시는 최근 대구한의대와 공동으로 문경시 동로면 일대 5만 여평의 부지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로하스 빌(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Village)을 개발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하스는 웰빙과 비교해 건강과 행복의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웰빙이 개인적인 측면에만 한정된 데 반해 공동체와 후손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볼 때 웰빙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이다. 특히 이번에 문경시가 준비 중인 로하스 빌은 분노와 축분,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과 수력과 풍력, 태양력 등 자연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 자연친화적 우수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돼 새로운 농촌마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문경시 관계자는 "로하스 빌에서는 친환경 농업만을 이용해 농사를 짓도록 의무화하고 자연 친화적 재료로 흙스테이가 가능한 집을 짓도록 하는 등 입주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로 운용되는 자족마을로 환경에너지 교육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 혈액은 83%가 물

혈액 속의 물은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내보내줘

혈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물을 방지하고서는 건강과 장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혈액은 83%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절대 비중의 물을 방지하고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혈액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혈액은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액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본래 흐르기를 원합니다. 건강은 물일수록 잘 흐르고, 땅속에서도 잘 흐르다합니다. 지표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만 땅속에서는 위로도 흐릅니다. 이 물길이 다니는 곳은 수맥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산위에서도 샘물이 솟아 나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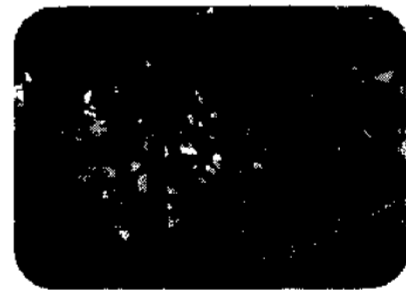
이와같이 우리 몸속에서는 물이 아래와 위를 가리지 않고 흐르고 있고, 그 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 공기 등 모두 다 물이 실어 세포에게 각각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쓰고 남은 노폐물과 가스 역시 물이 실어다 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이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을 물이 실어 내줘야만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만 체내에서 필요한 각종 효소와 호르몬이 제대로 생산되고 신경계와 근육 장기가 정상작동 됨으로서 면역성과 자연치유력이 높아지고 건강과 장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웰빙①

가늘은 호두나 땅콩 등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  
공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음식이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먹어도 될 수도 있고 먹어도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시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꼭 먹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호두나 땅콩, 잣 등의 견과류는 비타민 E, 셀레늄,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전(혈관 안에서 피가 굳은 덩어리)과 고콜레스테롤(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에 지방량이 많아진 것)을 줄여준다. 하지만 겉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공기에 산화된 땅콩이나, 호두 등을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알러미늄 캔이나 쿠링호일에 포장된 견과류도 조심할 것. 알러미늄 성분이 뇌에 축적되어 나중에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귀찮더라도 먹을 때마다 까서 먹는 게 좋다. 견과류는 30g에 150kcal의 열량을 내는데 맛 있다고 하루 종일 먹다간 자신도 모르는 새 살이 찌 수 있으니 하루 4~5개만 먹자.



위염이 심한 사람은 콩을 조심-  
신장에 부담을 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 콩 삶은 물을 버려 독소의 칼륨을 미리 제거하고 먹도록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 속에는 천연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항암 작용에 효과적이다. 세계적인 비만 연구 학자 데이비드 허버 교수도 콩의 효능을 인정했다. 하지만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젠과 같은 생리 작용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젠의 작용을 방해해 생리주기에 문제가 생겨 생리 불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 10알 정도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 콩을 먹을 때는 멸치나 우유와 함께 먹지 말 것. 콩 속에 함유된 인산과 멸치, 우유에 함유된 칼슘 성분이 만나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고스란히 빠져나와 아무런 영양분도 전달하지 못한다. 위염이 심한 사람도 조심하는 게 좋다. 콩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미네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콩 삶은 물을 버려 독소의 칼륨을 미리 제거하고 먹도록 한다.

경 업계 최초 ISO9001·ISO 14001 동시인증, 해외 수출하는 기술경쟁력 우수업체 지정 (국)

# "뭐니뭐니해도 역시 품질 좋고 값싸고 효과 좋은 『나르겐·부리오·미리근』이 최고야!!"

·대우제품을 꼭 확인하시고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병해충 방제시 해당농약에 나르겐 부리오·미리근을 혼용살포하면 치료 및 회복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르겐**  
**부리오**  
**미리근**

1. 농업인 누구나 사용하며 효과와 상품명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
2. 판매상 상호간에 판매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3.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4. 기업이윤 환원차원에서 (주)대우에서 원가로 공급한다.
5. 나르겐·미리근·부리오 등의 (주)대우제품을 찾으면 타회사 제품을 권장한다.
6. 농업인의 필수품이며 양심적인 사장님들만 판매하며 본인 과수원이나 논밭에는 (주)대우제품만 사용한다.

※시기에 맞추어서 대우제품을 잘만 사용하면 각종 병해로 인한 농약실포손실을 절반 가까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